

문법사항 - 가정법에 대한 유진교수님의 설명

구문도해 영어구문론 §213. Mood(법)

동사가 서술하는 양식을 mood(법: 法)이라고 한다.

우리의 정신생활에는 두 세계가 있는데, 하나는 목전에 생생한 사실로 나타나 있는 현실사회이고, 또 하나는 우리의 상념의 세계다.

이 상념의 세계는 현실사회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(추상, 공상, 희망, 소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꿈나라 같은 것).

그래서 현실사회에 있는 사실을 동사가 서술하는 양식을 직설법(Indicative Mood = Fact Mood)이라 하고, 생각만으로 된 상념의 세계를 동사가 서술하는 양식을 가정법(Subjunctive Mood = Thought Mood)라고 한다. 그리고 사람의 의욕을 표시해서 명령하는 양식을 명령법(Imperative Mood)라고 한다.

구문도해 영어구문론 §229. Subjunctive Mood(가정법)의 의의

우리의 세계는 두 가지가 있다. 하나는 앞에 엄연한 사실로 실존해 있는 현실의 세계고,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마음의 세계다.

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백만장자도 되어 볼 수 있고, 죽은 사람을 살아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으며, 엄연한 사실을 의심도 해보고, 실현성 없는 일을 소원해 보기도 하며, 또 어떤 일을 목적하고 주장도 해볼 수 있다.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세계를 서술하려고 할 때 비로소 가정법이 필요하게 된다. 가정법이라고 하면 이름 그대로 어떤 일을 가정만 하는 데 쓰는 법(mood)은 아니다.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 떠오르는 일을 서술하는 법이므로 가정, 추측, 의심, 소원, 요구, 목적, 주장, 제언, 경계, 양보, 타당, 비교 등 한 생각을 생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것이다. 다음에 예시하는 각 항의 가정법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실존한 사실로서 서술된 것이 아니고, 우리 머리 안의 한 상념으로서 서술된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.